

勸道歌



[해제]

<권도가(勸道歌)>는 「오륜도덕가(五倫道德歌)」라는 인쇄본 가사집에 실려 있다. 작가와 연대가 미상이며 길이가 비교적 짧은 도덕가사이다. 이 가사는 노래의 이름대로 사람들에게 도(道)를 행할 것을 간곡히 권하는 노래이다. 원형이정(元亨利貞)으로 배를 만들어 인의예지(仁義禮智)로 뜻을 달며 오륜삼강(五倫三綱)으로 그물 삼고 백팔제자로 사공 삼아서 고해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내용의 가사이다. 따라서 그물을 던져 고해의 중생을 구하고자 불철주야 힘쓰신 부처님이 행하신 자비의 뜻을 따르고, 유학의 강령인 삼강오륜의 도를 익히는 것만이 풍랑과 같은 험한 바다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문(生門)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충신과 효자와 같은 복을 받은 자는 전생에서 도와 덕업을 닦는 업의 인과응보이다. 그러므로 이 가사에서 권하고 있는 도는 우리를 제도해주실 자비로운 부처님의 도이고, 한편 공부자와 같은 성현의 삶과 길을 의미한다. 결국 작가는 우리들에게 지은 죄를 뉘우치고 지성으로 유.불의 도를 닦아서 우리가 바라는 극락장춘(極樂長春)의 소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권유하고 있는 가사이다. 다만 이 <권도가>는 내용이 난삽하고 한자어의 표현이 너무 심한 것이 흠점이며 “金剛如來八不困緣苦海衆生(금강여려팔불인연고희중생)건지라고元亨利貞(원형리정)배”로 시작하는 가사이다.

[원문]

朋友章

어화우리 師弟된자 朋友有信 드러보소
 財物로 사권벗은 艱難하면 쓸대업고
 權勢로 사권벗은 微弱하면 背反하고
 술자리에 사권벗은 네것내것 하다가서
 敗家亡身 할것이요 雜技판에 사권벗은
 惡한사람 알만하고 장기바둑 하는벗은
 閒暇한듯 하것만은 虛送歲月 孟浪하다
 그도相從 못하갓다 다시금 生覺하니
 相從하리 쏠허읍서 霽月光風 조흔때에
 心德으르 사권벗은 切切惺惺 일일삼어
 모진行實 警戒하고 착한일노 引導하며
 어진行實 思慕하여 道德君子 사귀여서
 朋友有信 되여보세 五倫道德歌 終
 勸道歌

金剛如來 八佛因緣 苦海衆生 건지라고
 元亨利貞 배를모와 仁義禮智 뜻을달고
 五倫三綱 그물맺고 百八宗弟 沙工삼어
 風浪劫海 내려가니 頭出頭沒 저衆生은
 生門언덕 어대맨고 五倫三綱 조흔그물
 苦海衆生 건져노니 忠臣孝子 烈女孝婦

積德後孫 이아니나
泛泛中流 배를씩워 太平福海 다달아서
金華山中 도라드니 玉蓮祠가 여기로다
四面을 살펴보니 天地은 明朗하고
日月은 照曜한데 修養山 三台峰은
太古心을 씌여잇고 白雲巖上 저麒麟은
生草木을 밥지안코 秋月梧桐 鳳凰은
飢不啄粟 壯할시고
桃花流水 杳然去는 四海春色 傳해노니
別有天地 非人間이라 漸漸차져 드러가니
五雲이 玲瓏하고 瑞氣는 半空이라
大聖殿 三教門은 無極으로 通達하고
古廟深深 白日寒은 善惡分別 分明하다
萬聖代化 慈菴佛은 受命廣濟 일을삼어
家家戶戶 親戚이나 不知蘇胞 웬일인가
至上至尊 金剛如來 大慈大悲 일을삼어
教化衆生 晝夜間에 功德莊嚴 조를시고
語話우리 衆生덜아 客地如夢 이세계에
禽獸行動 그만하고 天道人道 그가온대
五倫三綱 法을밧고 萬物慈悲 主張하야
樂天知命 새다르면 極樂長春 이아니나
무섭구나 무섭구나 不忠不孝 無道한者
善惡分別 무섭구나 어렵구나 어렵구나
性稟性字 어렵구나 조를시고 조를시고
家和樂道 조를시고 月南宮에 매진因緣
訪師千里 잇셔스니 急急히 回頭하여
太山갓치 지은罪惡 時時로 마음닥거
밧비밧비 버셔노코 八枝梅花 김흔뿌리
至誠으로 붓도들제 三庚三伏 잇셔스니
變치말고 道닥그쇼 至誠感天 잇셔스니
所願成就 읊슬쇼나
勸道歌 終

[현대역]

朋友章봉우장

어화 우리 사제 된 자 봉우유신 들어보소
 재물로 사권 벗은 가난하면 쓸 데 없고
 권세로 사권 벗은 미약하면 배반하고
 술자리에 사권 벗은 네 것 내 것 하다가서
 패가망신 할 것이요 잡기판에 사권 벗은
 악한 사람 알만하고 장기 바둑 하는 벗은
 한가한 듯 하 건만은 허송세월 맹랑하다
 그도 상종 못 하겠다 다시금 생각하니
 상종할 이 전혀 없어 제월광풍(霽月光風)²¹ 좋은 때에
 심덕(心德)으로 사권 벗은 절절시시(切切僣僣)²² 일을 삼아
 모진 행실 경계하고 착한 일로 인도하며
 어진 행실 사모하여 도덕군자 사귀어서
 봉우유신 되어보세

오륜도덕가 종

금강여래(金剛如來) 팔불인연(八佛因緣) 고해중생(苦海衆生) 건지려고 원형이정(元亨利貞)¹ 배를 무어
 인의예지(仁義禮智)² 뜻을 달고 오륜삼강으로 그물 맺고 백팔종제(百八宗弟)로 사공 삼아 풍랑겁해(風
 浪劫海) 내려가니 두출두몰(頭出頭沒)³ 저 중생은 생문(生門) 언덕 어디인고 오륜삼강 좋은 그물 고해
 중생(苦海衆生) 건져내니 충신 효자 열녀 효부 적덕후손(積德後孫)⁴ 이 아니냐 범범중류(泛泛中流)⁵
 배를 띄워 태평복해(太平福海) 다달아서 금화산중(金華山中) 돌아드니 옥련사(玉蓮祠)가 여기로다 사
 면을 살펴보니 천지는 명랑하고 일월은 조요(照曜)한데 수양산(修養山) 삼태봉(三台峰)에 태고심(太古
 心)을 띄워 두고 백운암(白雲巖) 위에 저 기린은 산 초목을 밟지 않고 추월오동(秋月梧桐) 저 봉황은 기
 불탁속(飢不啄粟)⁶ 장할시고

도화유수(桃花流水) 묘연거(杳然去)⁷는 사해춘색(四海春色) 전하니 별유천지(別有天地) 비인간(非人
 間)⁸이라 점점 찾아 들어가니 오운(五雲)이 영롱(玲瓏)하고 서기(瑞氣)는 반공이라 대성전(大聖殿)⁹ 삼
 교문(三教門)은 무궁(無極)으로 통달하고 고묘심심(古廟深深)¹⁰ 백일한(白日寒)¹¹은 선악분별 분명하
 다 만성대화(萬聖代化) 자암불(慈菴佛) 수명광제(受命廣濟)¹² 일을 삼아 가가호호(家家戶戶) 친척이나
 부지소포(不知蘇胞) 원일인가 지상지조(至上至尊) 금강여래(金剛如來) 대자대비 일을 삼아 교화중생
 (教化衆生)¹³ 주야간에 공덕장엄(功德莊嚴) 줄을 시고 어화(語話)¹⁴ 우리 중생들아 객지여몽(客地如夢)
¹⁵ 이 세계에 금수행동(禽獸行動) 그만하고 천도인도(天道人道) 그 가운데 오륜삼강 법을 받고 만물 자
 비 주장하여 낙천지명(樂天知命)¹⁶ 깨달으면 극락장춘(極樂長春)¹⁷ 이 아니냐 무섭구나 무섭구나 불
 충불효 무도한 자 선악 분별 무섭구나 어렵구나 어렵구나

성품성자(性稟性字) 어렵구나 줄을 시고 줄을 시고 가화락도(家和樂道) 줄을 시고 월남궁(月南宮)¹⁸에서
 매진 인연 방사천리(訪師千里)¹⁹ 있었으니 급히급히 머리 돌려 태산 같이 지은 죄악 때때로 마음 닦아
 바빠 바빠 벗어 놓고 팔지매화(八枝梅花) 깊은 뿌리 지성으로 복돋울 제 삼경삼복(三庚三伏)²⁰ 있었으
 니 변치 말고 도 닦으소 지성감천(至誠感天) 있었으니 소원성취 없을쏘냐

권도가(勸道歌) 종(終)

[각주]

- 1) 원형이정(元亨利貞) : 역학(易學)에서 말하는 천도의 네 가지 원리. 원(元)은 봄이니 만물의 시초요, 형(亨)은 여름이니 만물이 자라고, 이(利)는 가을이니 만물이 이루어지고, 정(貞)은 겨울이니 만물을 거두는 것을 말함
- 2) 인의예지(仁義禮智) : 인(仁), 의(義), 예(禮), 지(智)로 유교에서 말하는 사단(四端)이다. 곧 인(仁)은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의(義)는 수오지심(羞惡之心)에서, 예(禮)는 사양지심(辭讓之心)에서, 지(智)는 시비지심(是非之心)에서 우러나온다고 함
- 3) 두출두몰(頭出頭沒) : 머리가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반복한 것
- 4) 적덕후손(積德後孫) : 덕을 쌓아서 얻은 후손
- 5) 범범중류(泛泛中流) : 넓은 바다 속. 곧 넓은 이 세상
- 6) 기불탁속(飢不啄粟) : 봉황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조는 쪼아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봉황 같은 사람은 아무 것이나 주는 대로 먹지 않는다는 말.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앉고 대나무 열매만 먹고산다는 말에서 유래함
- 7) 도화유수(桃花流水) 묘연거(杳然去) : 이백의 [산중문답(山中問答)]에 나오는 시구. 問余何事棲碧山 문노니 그대는 무슨 일로 푸른 산에 사는가. 笑而不答心自閑 웃으며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 절로 한가롭네. 桃花流水杳然去 도화꽃 물에 떠서 멀리 흘러가니, 別有天地非人間 사람이 살지 않는 별천지라네.
- 8) 별유천지(別有天地) 비인간(非人間) : 이백의 [산중문답]에 나오는 시구
- 9) 대성전(大聖殿) : 문묘(文廟) 안에 있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전각
- 10) 고묘심심(古廟深深) :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사당
- 11) 백일한(白日寒) : 한 낮의 추위
- 12) 수명광제(受命廣濟) : 명을 받아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
- 13) 교화중생(教化衆生교화) : 중생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교화시키는 일
- 14) 어화(語話) : 기별 때 말하는 감탄사
- 15) 객지여몽(客地如夢) : 꿈속 같은 객지. 곧 덧없는 이 세상
- 16) 낙천지명(樂天知命) : 천명을 즐기고 깨달은 것
- 17) 극락장춘(極樂長春) : 긴 봄과 같은 극락
- 18) 월남궁(月南宮) : 천상에 있다는 꿈속의 궁전
- 19) 방사천리(訪師千里) : 멀리 있는 스승을 찾는 것
- 20) 삼경삼복(三庚三伏) : 하지 후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 경일을 말복이라 하여 삼경(三庚)이라 하고 혹은 삼복(三伏)이라 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